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민주공원

발행인 문정수 | 편집인 김중기 | 발행일 2019년 4월 12일 | 간별 격월간 | 등록일 2005년 10월 6일
등록번호 부산증, 마00006 | 표지 제호 신영복 | 디자인 중간 051-466-8994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전화 051-790-7400 전송 051-790-7410
www.demopark.or.kr



TALK

카카오톡에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친구추가하세요

2019.04 - 05

152



민주공원, 그 시작을 돌아보며

송기인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창립 30년, 민주공원 개관 20년을 맞아 '3020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업회의 초대 이사장인 송기인 신부, 김재규 전 이사장 그리고 지금 사업회를 이끌고 있는 문정수 이사장에게 사업회와 민주공원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물었습니다. 김중기 현 민주공원 관장의 글로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곁에 계시지 못한故 이규정 전 이사장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민주부산의 역사를 기리고 이어가고 있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민주공원,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1988년 신선동 성당에 살던 한 시민이 부산시장실을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했다. 부속실에서 시민 면담은 오후에만 한다가에 되돌아 나오는데 직원이 달려와서 들어오라기에 시장과 마주앉아 대화를 했다. '우리 부산시민들이(같이 아는 얘기지만) 부산의 민주화 노력과 그것의 기억, 계승을 위한 무엇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 의미를 살려가기 위해 공원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니 '좋은 발상 같은데 지금 형편에 가능하겠는가' 하고 되물었다. 일의 가부보다는 시장 자신의 의중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고 1차면담을 마쳤다.

지구상에는 많은 공원들이 있는데도 민주공원이라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1981년 독일 뮌헨 교외의 다카우 유태인 수용소였던 곳을 구경했었다. 입구에서부터 잡혀온 날로 시작해서 30일간의 맨몸 사진을 펼쳐놓았는데 보통 사람이 30일 만에 이렇게까지 마를 수가 있을까 믿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 사진은 피부에 뼈만 붙어있는 것을 보고, 강당에서 30분간 기록영상을 보는 동안 울지 않는 사람이 없는 듯했다. 여자들은 큰 소리로 통곡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사용한 물건들, 숙소, 가스처형장 등을 둘러보고 구내에 있는 수녀원에도 들렀다. 당시 처형되었던 주교와 신부들의 사진들을 보고 어떻게 수녀원이 수용소 안에 있느냐고 했더니 독일 처녀들이 유태인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그 수녀원을 지망하고 평생을 담 밖으로 나오지 않는 봉쇄 생활을 한다고 하였다.

거기에서 나는 동료 신부에게 이런 시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학 하나보다 낫겠다고 얘기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최후탄 눈물 말고는 그때에 제일 많은 눈물을 흘렸다.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홀로코스트도 보았

다. 그런 영향으로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부산의 민주화 노력도 살려가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계속 궁리하고 동료들과 토론을 했다.

다시 1996년 민선 문정수 부산시장을 면담했다. 예산 등의 걱정이 당연히 나왔는데 이 일만은 시민 성금으로 이룩할 수 있으면 더욱 뜻있겠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마치 태풍 피해 때에 성금을 모으듯이 비슷한 형식을 취해 보자는 의논으로 시민 유지 418명을 시민회관에 모았다. 회장은 시장이, 그리고 나는 집행을 맡아서 마치 재난 성금을 모으듯이 세 개의 신문과 3곳의 방송사가 연계해서 모금을 퍼기로 했는데 그해 7월부터 시민의 일반 모금을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모처럼의 꿈이 무산되었고, 하는 수 없이 나는 서울로 갔다.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께 '보안법 없애이소!' 하니 '못해요' 또 무엇을 말하니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지난번에 북한 퍼주기 한다고 날뛰는 울사들이랑 보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제일교포 고국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조작입니다. 그들을 석방해야지요!', '그건 연락하겠다'. 그리고 민주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 그제 뭐냐고 생소해 하는데 마침 배석했던 김광일 비서실장이 그 전해에 부산서 만들었던 6월 항쟁 자료집에 김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있는 곳을 펼쳐 보이고 이런 것을 정리하고 관람케 해서 후세에 전하자는 것이라고 하니 '만들면 되지요!' 한다. '만드는 데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하니, '돈은 걱정 말고 진행하라'고 해서 그 문제는 풀었다.

그러나 우선 부산의 시민들 뜻을 모으는 게 힘들었다. 왜 하필 어려운 공원을 만들려고 하느냐? 시청 자리나 역광장에 비석을 세우든지 기념관 같은 것을 하나 지으면 되지 않느냐는 등등. 공원 후보지도 문제였다. 현재의 벅스코(당시 공군 관리), 시민공원(당시 미군 주둔) 어린이대공원 등을 답사했으나 여의치 못했다. 현재의 민주공원 터는 내가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했던 곳으로 너덕지는 않지만 경관 등으로 보아 적임지라 낙착하고 매입에 들어갔는데 네 분의 주인 중에 입구에 있던 식당 건물 주인이

고집을 피워서 애를 먹었다. 설계모집부터 제한을 두지 않았다. 누구나 어느 나라든 응모할 수 있었고 개인도 단체도 가능했다. 선정도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이 결정했다. 전날 밤 늦게 20여 명의 시민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일 아침 시청강당으로 나오라고 하여 설계도들을 펼쳐놓고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하나씩 고르라고 해서 그중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으로 낙착했다. 부정이나 청탁 같은 것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10월 16일 기공식을 갖는 데 서울에서 비서실장이 왔다. 민주공원을 만들 때 역사의식을 살리려 애썼다. 지번도 여러 개 있었으나 산 10-16번지로 했고 개관 날짜도 10월 16일을 고집했다.

시민들이 주관한다 해도 비전문인들이므로 시청의 주무부서와 시행사 간에 무슨 얘기들이 오가는지는 잘 몰랐다. 혹시 눈에 드러나는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을 제대로 알 턱이 없었다. 그래도 좋은 재료 등을 사용하고 싶어서 포천의 석산과 익산의 돌 재제하는 데까지 직접 확인하고 매일같이 공사현장의 공원들을 둘러하고 저녁이면 국밥집 소주를 많이도 축냈다. 개관 계획일에 준공을 위해 다 같이 분투했다.



청와대에서 얘기했을 때, 대통령께 준공 때는 이 자리에 안 계시겠으나 개관 행사에 참석은 해야 한다고 다짐은 받았기에 준공 전날 밤에 전화를 했다. 마침 코모도호텔에 계신

다기에 찾아뵙고 내일은 경사스런 날이니 격려와 칭찬만 하시렷더니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요'라고 했다. 1999년 10월 16일은 비바람이 세졌다. 동편에서 시장이 YS를 맞이하고, 서편에선 엘리베이터로 DJ 내외분을 모셨다. 로비에서 건성으로 악수를 하고 자리했는데 비바람 때문에 대통령 내외분의 탁자 밑에는 난로가 있었지만 YS는 그냥 의자에 앉았다. YS가 축사를 하는데 어떻게나 욕을 많이



하는지 옆에 앉은 대통령 내외분에게 너무 민망했다. 준공식을 마치고 대통령 내외분은 서울로 가고 YS는 기념식수를 하는데 기자들이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하였느냐고 하니 까 바람에 원고가 날아가서 준비한 욕을 다 못했다고 한다.

공원의 관리 운영주체는 당연히 시청이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으나 나는 민주공원만은 시민이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전례 없이 시민이 맡기로 했다. 그전에 백산기념관을 되찾아 세울 때의 경험이 교과서가 되기도 했다. 시민들이 뜻을 모아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니 존치만 할 뿐 그 뜻을 살려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념관을 만들며 그 의미가 시민들에게 널리 퍼져야겠는데 그저 보존에 지나지 않았다. 열정으로 그분을 배우는 과제들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노력과 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민주공원을 만들자면 시민들의 적극성이 필요한데 시민의 눈을 끌고 마음을 사로잡는, 그래서 그 정신을 확산시켜 나가자면 우선은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의 주역들이 일을 맞는 게 좋으리라 생각되었다. 아직 겪어보지 못

한 시도하기는 하지만 전문가의 머리를 빌려가며 관리한다면 해볼 만한 일로 생각되었다. 그런 얘기로 의견들을 맞추고 비록 서툴고 착오도 있겠지만 그런대로 의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민주공원 개관 이후 4·3공원, 5·18, 3·15 등 묘역과 기념관들을 만들면서 민주공원이 많은 참고가 되었고 국내 뿐 아니라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도 찾아왔으며 민주공원 설계도 사본을 요구하기도 하고 제주에는 내가 직접 가기까지 하였다.

우리도 생각해보자. 물론 애초의 열정들이 식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단순히 새로운 기획들로 과거를 개발하고 알뜰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의 흐름 그리고 요즘 시민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핵심은 어떤 것인지 등을 연구하고 그들이 찾기 전에 제공하는 선제적 유도가 필요하다. 마음이 닿는 배울 것이 있는 곳으로 각인되게 하고, 홍보나 연락만으로는 아닌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해야 한다.

초기에는 지역민과의 협력에 제법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구청 지원으로 명절이나 큰 행사 때에는 부녀회가 동원되어 봉사를 하였고 인근 고등학교들에서는 공원의 잔디밭을 구획지어 반별로 책임져서 가꾸기도 했다. 이런 협력들은 참가자들이 자기가 속한 마을의 공원이란 자긍심을 갖게 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애착을 갖게 마련이다.

민주공원은 누구의 것이기보다 모두의 공원이므로 이에 걸맞은 운영이 기대되는 소이다. 그리고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들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시티투어 버스 코스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원래 민주공원 입구 광장에서 대신동으로 넘어가는 시내버스가 교행할 수 있도록 확장하느라 서울까지 가서 의논하여 어렵게 공사를 하였는데 끝나고는 주민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그 문제도 풀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우리의 청소년들과 시민들만이 아니라 세계인이 민주화 노력을 체험할 필요 때문에도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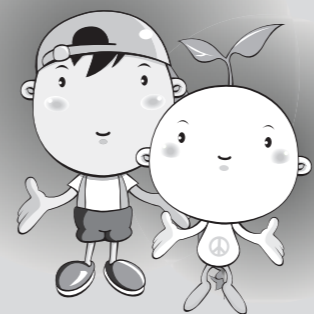
민주공원을 시작할 때에 애쓴 분들, 특히 지금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수고하는 문정수 당시 시장, 고인이 되셨지만 김광일 당시 비서실장 등 민주공원으로서는 고맙게 기억해야 할 분들이다. 🙏

(사)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 바란다!

- 지역 사회와 커뮤니케이션 강화
- 역사 모꼬지 진행해주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 학교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교사들의 민주시민교육, 학부모 및 일반인들의 민주시민교육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아이들과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민주화운동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았으면 합니다.
- 적폐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역사인식의 장을 열었으면 합니다.
- 민주항쟁의 참여자 강연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회 · 민주공원에 바란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창립 30년, 민주공원 개관 20년을 맞이해 부산시민 및 사업회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소중한 의견을 앞으로의 걸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응답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포근함, 접근성이 있는 전시 예술 공연
- 민주항쟁 관련 유물과 사료 관리를 위한 전문 사료관 건립 추진
- 민주공원을 좋아하는데 밤이 아니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밤에 가면 다 잠겨서 옥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옥상으로 통하는 문 하나라도 개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민주공원보다 중앙공원으로 더 알려진 듯합니다. 홍보 많이 해주세요.
- 진입로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 민주공원에 놀러 자주 가는데 교육장으로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까워요...
-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 학생들이 즐겁게 찾는 명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평화의 봄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민병렬 | 6.15공동선언실천 부산본부 공동대표

얼마 전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남북정상회담성사 부산시민준비위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다. 신문, 방송에서 많이 알려진 한동대 김준형 교수의 주제발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 분의 질문이 인상적이었다. 어쩌면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른다. “북한이 정말 핵을 폐기할 생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강사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딱 부러진 답을 했다.

우리는 해방에 이어 외세의 개입과 분단, 전쟁의 상처를 겪었다. 70년 넘게 냉전구조의 포로로 살아왔다. 우리의 사고구조, 사회구조 어느 구석 하나 분단의 틀에서 자유로운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오죽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2등을 한 야당정치인은 온 겨레가 환호한 4.27판문점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라고 태연스레 망발을 하지 않았나? 필자가 2000년 6.15정상회담이 있고 남북공동행사에서 북측인사들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받은 충격은 북한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통일을 염원하고 평화를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이었다. 분단 세월이 뻗속 깊이 불신과 냉전의 사고로 세뇌시켜오지 않았나? 그 모진 상처와 반목과 적대의 세월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평화변영과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자.

지난 2.27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무산되었다. 북의 핵시설이 폐기되고 종전선언이 채택되고 두 나라의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거라는 기대, 이어서 남북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는 수많은 예측들이 빗나가고 말았다. 정상회담에서 합의무산은 상상해보지 않은 일이었기에 충격이었다. 국내 정치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의 합의를 들고 가서는 더 곤욕을 치를까 뻔한 상태에서 노딜을 선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

가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27 첫 만남에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과 노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6.12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있기까지 260여 일에 대한 소회를 말한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인가?

북한과 미국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나라이다. 북한은 미국을 철천지원수라 하고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 불렀다. 그 관계변화 또한 극적이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2017년 극한적인 대결상황을 겪었는데 2018년에는 적대 70년 만에 첫 정상회담과 싱가포르합의를 이루어냈다. 몇 달 사이에 지옥과 천당 사이를 오간 셈이다. 지난 20여 년 남짓한 기간, 전쟁 접경까지 가는 극한위기상황과 극적인 협상 타결을 여러 차례 겪은 사이이다. 굵직하게만 보아도 1994년의 제네바 북미기본합의서, 2000년의 백악관 북미공동성명, 그리고 2005년의 6자회담 9.19공동성명 등 3번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적대의 두터운 빙하를 녹이지는 못했다.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서 북한은 북한대로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미국은 미국대로 대북제재로 압살을 호언장담했다. 위기는 견잡을 수 없었다. 역설적이게도 극단적인 충돌의 위기가 북미 두 나라 정상역사적인 만남을 이루어낸 것이다.

그리고 세기의 담판으로 불린 싱가포르 6.12회담에서 두 정상은 지난 3번의 합의보다 한 차원 높은 큰 틀의 밑그림에 합의한다. 첫째, 북미 두 나라는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셋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 넷째, 유해를 송환한다.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지역인 한반도에서 70년 적대를 풀고 평화의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한 통 큰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다.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비핵화실현에, 북한은 새로운 관계형성의 첫걸음으로 대북제재완화에 협상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끝났지만 앞으로의 북미관계는 이 4가지 합의의 틀에서 또 지난한 과정을 겪으며 나아가게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만약 어느 한쪽이 4가지 밑그림마저 무시하고 또다시 적대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역사를 되돌리려고 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겠지만!

남북관계에서 한때 ‘통미봉남’이라는 말이 있었다. 한국정부가 반통일 행태만 일삼던 시절, 북한이 미국하고만 상대하고 우리를 파트너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작년 평창올림픽에서 시작된 남북화해의 훈풍이 4.27판문점 선언을 만들었고, 위태위태하던 6.12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치상으로 보아도 그렇다. 이 땅에서 전쟁이 나도, 위기가 격화되어도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 남북동포들이 고스란히 덮어쓰게 된다. 우리에게 평화만큼 절박한 것은 없다.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이다.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자국의 이익을 철두철미 앞세우고 얼마나 계산적인지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다. 핵병, 핵망 이런 외교적 수사들이 현실의 이익에 상충될 때는 얼마나 무의미해지는지도 잘 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의 뭉이고 역할이다. 4.27판문점 선언 1항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정신으로 난국을 헤쳐 나갈 때 길은 열리게 될 것이다.

평화의 봄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먼저 일어선 것은 시민들이었다. 3.1운동에서 촛불혁명까지 지난 100년의 역사가 실증해주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평화시민이 나설 때이다. 평화시민이 나서야 우리 정부가 중재자를 넘어 촉진자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무드를 깨기 위해 광분하고 있는 수구냉전집단의 망언과 망동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강경파, 일본의 아베정권 역시 평화의 봄을 막아보려고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은가?

부산의 시민사회, 여성, 청년, 노동, 종교, 정당들이 나선다. 며칠 전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4월 20일(토) 오후 6시 서면에서 대규모 시민평화대회를 개최하고, 4월 27일에는 전국에서 모인 평화시민들과 함께 휴전선 임진각에서 평화의 함성을 모으기로 하였다. 마땅한 일이다. 어렵게 열어진 한반도 평화의 봄, 천재일우의 기회를 또다시 내외의 훼방꾼들에게 짓밟힐 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이 나설 때이다. 🇰🇷

백 년 동안의 과제

김호민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연구원

3 · 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공화정의 정신은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토대를 이룸과 동시에 4 · 19혁명, 부마민주항쟁, 5 · 18민주화운동, 6월항쟁 그리고 촛불항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청소년, 청년의 시각으로 과거를 다시 바라보고자 합니다. 특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서의 일제강제동원에 집중합니다. 민주공원 청소년 · 청년 자원활동가들은 2019년 2월 '강제동원과 동포 송환 문제', '일본군 위안부', '전쟁의 수혜자-전범기업'을 주제로 함께 글을 썼습니다. 이번 연재 글에 이어 2019년 한 해 동안 연재합니다. - 편집자 주



3 · 1운동의 열기가 한창이던 1919년 4월 10일 밤,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로 한 무리의 동양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군벌 간 전쟁의 혼란에 신음하던 중국인도,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의 국민으로서 으스스하던 일본인도 아니었다. 그들은 1910년에 나라를 잃었던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었다. 국내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계기는 당시 조선을 휩쓸고 있던 3 · 1운동의 열기였다. 일제는 물론 김신부로의 한 셋집에 모인 29명의 독립운동가들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격렬했던 3 · 1운동의 흐름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다. 국제 정세도 유리해 보였다.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전제정이 무너졌고 제국들이 지배하던 동유럽 곳곳에 독립국들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조선인들도 독립국과 그 정부를 세워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자신들의 회의체를 임시의정원으로 명명한 독립운동가들은 국명과 정부의 형태를 두고 회의를 계속했다. 어둠이 지고 해가 떠오를 무렵 회의가 끝났다. 국호는 대한민국, 정부의 형태는 민주공화제였다. 때는 4월 11일 오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출발이었다.

절대독립의 슬로건을 걸고 출발한 임시정부였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임시정부가 얼마나 많은 분열과 혼란을 겪었는지 잘 알고 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 실망해서 떠나갔고 일부는 인정하지도 않았다. 독립운동사에서 임시정부가 갖는 위치, 오늘날의 대한민국 정부와 임시정부 간의 실질적인 승계 관계 등을 놓고 학술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때로는 1948년 건국론과 같은 극단적인 주장이 논쟁의 틈새

를 비집고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에도 불구하고 4월 11일 아침에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헌법, 대한민국임시헌장은 여전히 의미할 가치가 있다. 왜 그럴까? 100년이 지난 지금도 달성되지 못한 과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은 고작(?) 10조에 불과한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쯤 되면 헌법이라기보다는 선언문에 가깝다. 그러나 그 선언문 속에 담긴 가치는 지금도 생명력이 있으며 일부는 아직도 달성되지 못했다. 임시헌장 제9조를 보자. 9조는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을 선언하고 있다. 100년이 지난 지금 9조는 달성되었는가? 아니다. 신체형과 공창제는 폐지되었으나 사형제는 엄연히 살아 있다. 임시헌장 제3조는 어떨까?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無)하고 일체 평등임'이라고 되어 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 빈부의 계급은 없을까? 임시헌장을 만든 29인도 궁금했을 것 같다. 고맙게도 3조가 세상에 나온 지 정확히(!) 100년이 지난 20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통계청이

소득격차 국제 순위를 발표해주었다. OECD 36개국 중 32위다. 29인도 꽤 실망했을 것 같다.

임시정부를 세운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그리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독립국의 모습에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임시헌장의 초안을 만든 조소앙은 해방 직후인 1946년 3월 1일, 다음과 같은 모습을 제시했다. '아이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하오리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성 권리를 갖게 하오리다. 사람마다 우유 한 병씩 먹고 집 한 채씩 가지고 살게 하오리다' 어느 정도 달성되었을까?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 뒤에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보여주는 입시지옥이 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만 투표권이 없는 18세 청년들이 있다. 집 한 채를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결국 완벽하게 달성된 것은 사람마다 우유 한 병을 마실 수 있다는 것뿐인 걸까?

3 · 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을 맞아 대한민국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 정신을 잇겠다고 한다. 매우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100년 전에, 그리고 해방 후에 제시된 과제들은 얼마나 달성되었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갈 길이 멀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중요한 약속을 체결한 날을 기념하곤 한다. 예를 들어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결혼식 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사랑의 실천이 중단된 상태에서 결혼식 날만을 기념한다면 그것은 환멸로 귀결될 것이다. 2019년의 100주년 기념식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이 약속한 해방된 조국의 비전은 아직 달성되지 못했다.

심지어 일제가 남긴 암울한 유산조차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다. 임시헌장의 선언문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의 인도(人道)가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 것이고 우리의 정의가 마침내 일본의 폭력에 승리할 것'이라고. 그러나 일본이 자행한 야만과 폭력의 최대 희생자들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날 일본 정부는 시간이 자신들의 최대 무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시간을 끌어 희생자들이 모두 사라지면 환멸만이 남을 것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 맞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을 기억하고 강제동원의 수혜자인 전범기업을 파헤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다. 백 년 동안의 과제를 이어받은 이들이다. 이번 연재는 그들의 과제 수행에 대한 기록이다. 📖



사진 왼쪽 위에서부터
 • 연재를 이어갈 민주공원 청소년 · 청년 자원활동가
 • 1921년 대한민국임시정부 · 임시의정원 신년축하 기념사진
 • 2019년 3 · 1운동 100주년 기념식 및 제6회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 포스터

초심

- 김부민 회원을 만나다

이지영 | 민주공원 회원사업담당

벚꽃이 흩날리고 있는 와중에 새해를 이야기하려니 멋쩍다. 텔레비전 코앞에 전기장판을 깔고 베개 2장을 겹쳐 누운 자세로 맞이한 기해년이다. 해돋이를 보러 간다거나 신년계획을 세운다는 등 몸과 마음의 품이 드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아차, 화면 속 연예인들과 함께 카운트다운은 외쳤다. 2018년 12월 31일과 다를 바 없는 2019년 1월 1일이었다.

여타의 자리에서 새해 다짐을 물어왔다.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답을 뒤늦게 적어본다면 '초심'이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창립 30년이자 민주공원 개관 20년이 된 올해, 회원들이 일궀낸 너른 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회원사업담당자로서 마음가짐이 달라야지 않겠는가. 누워있던 연초를 떠나보내고 초심을 되새겨야 할 시기에 기념사업회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회원을 만날 수 있었다. 김부민 회원의 삶을 넘지시 엿보자.

김 회원은 시민단체의 문화기획자로 시작하여 사상구의원을 거쳐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임기를 수행 중이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식지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준 그는 민주공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다. 민주공원 전 직원이기도 한 김부민 회원에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창립 30년은 어떤 의미일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고유한 목적과 함께 뚜렷한 상




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인 민주공원이라는 공간도 있으니 시민단체들의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하죠. 앞으로도 지역 시민단체의 든든한 큰집이 되어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해 부산시민들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잘하고 있다며 토닥여주는 선배의 말이 참 고맙다.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민주공원에서의 추억을 회상하는 김 회원에게서 잠시나마의 여유도 느껴졌다. 시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이어가며.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부산의 경제 구조는 다양한 분야 속에서도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느끼는 체감 온도가 더 낮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시의회에 들어와 보니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많아요. 그들에게 부산시의 지원사업을 많이 알리고 연결시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 중점 과제입니다.”

또한 김부민 회원은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부산형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외진 곳에 있는 식당일지라도 음식이 맛있으면 찾아가듯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문화예술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하고픈 필자의 고민과도 연결되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꾸준히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시는 회원들을 생각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김부민 회원이 오늘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다섯 가지의 꿈을 실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하기, 한 달에 한 번 소풍 가기, 일년에 한 번 여행가기, 나이 뒤에 '0'을 더한 만큼의 월급을 벌기, 그리고 월급의 10%를 기부하기. 나눔을 잊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그려나가는 그의 꿈을 응원한다. 

기리며... 사월비

이혜빈 | 민주공원 학예 · 전시담당

봄이 왔다. 3월의 꽃샘추위를 견뎌내고 완연한 따뜻함이 움트는 달이다. 살이 아리는 추위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4월이 마냥 따뜻하고 포근하지는 않았다. 뒤늦은 찬기가 불어오기도 하였고, 타오르는 열정에 뜨거워하기도 하였다. 민주공원은 4월, 이 복잡미묘한 달을 노주련 14회 초대개인전 <사월비(四月碑)>로 녹여내 보았다. 작가는 '큐브(CUBE)'라는 사각형의 입방체를 사용하여 관념을 표현하는 활동을 가졌는데, 이번 전시 역시 이전 작업들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매개체 '큐브'는 그 원형이 사각형이다. 사각형은 자연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달, 생명체의 눈알, 물방울 등 자연에서 유래된 도형은 원형이지, 사각형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각형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아무래도 사각형

은 온전히 인간에 의해 생겨난 인위적인 형태로 보아야 하겠다. 즉, 인간의 관념과 사상이 그대로 녹아있는 도형인 것이다. 사각형의 시작은 직선의 합이었다. 잘라진 나무, 일렬로 다니는 동물 등 자연의 직선에 인간이 규칙을 세워 사각형을

만들었다. 따라서 사각형은 그 자체가 온전한 하나의 형태이지만, 수많은 직선들의 합이기도 하다¹⁾. 작가는 이러한 사각형(큐브)의 철학을 현실세계에서 확인하였다. 개별의 사건과 기억들이 현재 즉 '큐브'를 만들었다. 지금의 인성이 과거 희생의 축적이라는 의미로 다가온다.

작가는 도입부에 노랑고 작은 딱지들로 사월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비를 세웠다. '사월비' 역시 큐브의 철학적 요소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완결된 형태가 아닌 작은 딱지들을 덧이여 놓여있다. 이에 마치 작은 딱지들 속에 저마다의 사연과 감정들이 쌓여 비석을 이루는 것 같이 다가온다. 이외의 공간은 모두 '별론 큐브'들을 배치해 놓았는데, 종이공, 딱지, 구름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작가는 딱지 별론의 색을 하얀색과 노란색으로 나타내 노스텔지어의 감성을 심어준다. 또 구름을 피움으로써 빛나는 노오란 촛불이 하늘로 날아가는 느낌을 자아낸다. 마치 추모를 위해 띄운 풍등처럼 말이다.



▲ shadow of cube 404, 200x200x200cm, the printed Cube on light balloon, 2018

1) 아카세가와 겐페이, 김난주 역, 『사각형의 역사』, 안그라픽스, 2016.

이번 전시는 보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생각을 움푹운다. 다만 모호함을 피하고자 작가는 노란색이라는 색감적 요소와 민주공원이라는 공간적 요소를 전시에 녹여두었다. 이에 누군가는 노란색을 통해 봄이 왔음을 알리는 개나리를 보았다. 또 다른 누군가는 지나간 팽목항의 시림과 아픔을 떠올렸다. 4·19혁명 등과 같은 민주화 열사들과 마주하기도 하였다. 전시를 보러 온 관람객이 제각각 다른 무언가를 보고 가도 상관없다. 다만 부드럽고 온화한 그 감정만은 가지고 돌아갔으면 싶다. 이번 봄은 추위를 이기고 핀 개나리의 꽃말처럼 과거에 대한 추모, 현재의 달성 나아가 미래에 대한 희망들이 흩날리는 계절이기를 다시금 기대해본다.



▲ shadow of Beyond Cube, 140x140x140cm, the printed Cube on light balloon, 2018

부산민주공원 초대 노주련展

사월비 四月碑

- 일자 : 4월 12일(금) ~ 5월 12일(일), 월요일 휴관
-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장소 : 잠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



촛불시위, 촛불항쟁, 촛불혁명

김형기 | 팔복교회 목사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가을에서 겨울을 거쳐 이듬해 새봄에 이르도록 6개월 동안을 잇을 수 없다. 장장 23차에 걸쳐서 주말마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도시들에서 마치 다른 우주에라도 온 것처럼 어두운 밤의 도심광장에 촛불이 대은하를 이루었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민주시민들이 분노하여 **촛불평화민주시민문화대축전**을 벌이면서 국정농단으로 부패한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고 조기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새 정부를 탄생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던 것이다.

어두운 밤에 거대한 촛불해일이 일렁이는 장관을 보면서 온 세계가 그 경이로운 아름다움에 감격했었다. 민주주의와 정의구현을 갈망하여 모여든 남녀노소가 노래와 춤을 즐기고 가장행렬을 벌이곤 하였다.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서 구호를 만들어 외치고, 민주주의를 위한 토론장이 열리곤 했었다. 분노한 촛불시위대와 경찰들 사이에 밀고 당기는 몸싸움은 있었지만 서로를 적대시하고 욕하는 폭력행위는 볼 수 없었다. 단지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교체를 위한 외침이 있었을 뿐이요 살육을 불사하는 잔인한 구호 따위는 찾을 수 없었다.

2016년 10월 25일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박근혜의 대국민 사과가 도리어 촛불시위를 촉발시켰다. 10월 29일 1차 20,000여 명의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주말마다 거행된 촛불시위의 규모는 확대일로로 걷게 된다. 11월 5일의 2차 촛불집회에는 20만 명이 운집했는데 그에 앞서 3일에 **박근혜 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상 국민행동) 준비위가 출범하였고, 11월 9일에는 공식 발족되었다. 11월 12일의 3차 촛불집회에는 100만 명이 운집하였다. 12월 3일의 6차 촛불집회에는 232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끓어오르는 촛불민심 앞에 박근혜는 굴복하기 시작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시민이 시위에 참가했던 1987년 ‘6월항쟁’ 때의 150여만 명의 기록을 훨씬 넘어섬으로써 대한민국 현대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광장에 나오지 못한 국민들은 오후 7~8시 ‘1분 소등’ 행사로 대통령 퇴진운동에 동참했고, 도로 위의 운전자들은 이 시간에 경적을 울리며 힘을 보탤다. 촛불시위대의 구호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경하고 단호해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규탄’을 외치던 시민들은 ‘박 대통령 즉각 퇴진’, ‘박 대통령 구속’ 등 수위를 높여갔다. ‘새누리당 해체’와 ‘우병우·김기춘 구속’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분노한 촛불민심에 정치권도 긴장하며 따를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2선후퇴’와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과 야권 의원들은 성난 촛불민심에 굴복하였다. 12월 5일에는 국회에서 171명의 의원들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다. 처음엔 가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까 우려하는 소리가 있었지만 촛불민심의 압박은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 숫자를 갈수록 늘려갔다.

12월 9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탄핵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되어 박근혜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12월 21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하여 국정농단 사범들의 수사를 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세 달이 지난 후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에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하였다.

다음날인 3월 11일에도 20차 촛불집회가 진행되었는데 누적 참여자가 1,6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행동 집행부는 촛불시위 광장에 나온 시민들과 더불어 촛불항쟁을 촛불혁명으로 부르면서 기뻐하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탄핵전을 나누어 먹는 등 축제 분위기로 집회를 마쳤다. 탄핵



으로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60일 이내에 조기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기 대통령선거 국면이 시작되었다. 본 선거일은 2017년 5월 9일로 확정되었다.

21차 촛불집회는 3월 25일에 열렸고 모임 주제는 박근혜 구속 만민선언이었다. 박근혜는 도주우려가 매우 큰 인물이니 출국금지 조치와 자택 압수수색 실시에 이어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했다. 3월 31일에는 촛불민심에 부응하여 박근혜가 마침내 구속되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인 4월 29일에는 촛불혁명으로 인한 조기 대통령선거가 진행되고 정권교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제23차 촛불집회를 열어서 장장 6개월에 걸친 촛불시위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촛불혁명의 완성과 함께 언론에서는 권력자 핵심층근으로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부역자들 명단을 만들어 보도하기도 했다. 한겨레신문이 정리한 부역자 33인 중에는 국정농단 핵심 8인방, 청와대 내부자들 6인, 여의도 측면지원파 국회의원 4인, 인간 박근혜 목격자 5인, 경제적 조력자 재벌 2인, 최순실 권력의 기생자들 4인, 프로막달러 3인이 있다. 그중에서 핵심 8인방은 전원 구속되어 사법처벌을 받았으며, 청와대 내부자 중에는 5인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외 사람들은 다수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만 여의도 측면지원파 국회의원 4인은 그대로 있어서 국정농단 적폐청

산을 방해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는 중이다. 촛불혁명 이후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는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이어졌고, 1위 득표율 41.09%로 끝이 났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4.04%로 2위, 안철수 후보는 21.42%로 3위, 유승민 후보는 6.76%로 4위, 심상정 후보는 6.17%로 5위였고, 그 밖에 8명 군소 후보의 득표 합계는 0.52%에 그쳤다. 탄핵을 주도한 촛불민심이 대선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 홍준표 지지 24.04%를 제외한 국민의 76%가 분노하여 박근혜 탄핵에 적극 찬성했던 것이다.

국민행동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15일 만인 5월 25일에 해산선언 및 적폐청산, 촛불대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석자 전원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노래를 제창하면서 촛불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그날에 국민행동 집행부가 스스로 평가한 촛불혁명의 성과와 그 의미를 살펴보자.

“밝혀진 촛불시민혁명의 대장정이 일단락되는 오늘, 우리는 현재 진행형인 항쟁의 성과가 어디까지 미쳤는지 갈음할 수 없는 시점에 있다. ...또한 촛불민심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음이 자랑스롭다. 2017년 4월 29일 23차 범국민

행동까지 타오른 촛불은 연인원 1700만 명의 평화로운 광장이었다. ...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치권과 국회가 주저할 때 광장을 통해 이를 질타했으며 우리 시대 민주주의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온몸으로 증언했다. ...광장 자체가 민주주의 학습장이었고 해학으로 어우러진 축제장이었다. 이들의 평화로운 분노에 공권력은 폭력을 멈추었다. 세계시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촛불시민혁명이 걸어온 시간들을 빼곡히 기록해 알려 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2018년 10월 29일 즈음해, 우리의 기록을 세상에 공개할 것이다. 적폐청산과 촛불대개혁의 과제가 어느만큼 진행되었는지 항쟁의 주인들이 모여 확인할 것이다. ...

특권과 반칙에 분노한 촛불시민혁명의 새로운 30년이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정의를 통한 평등의 사회를 실현하는데, 오늘처럼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역사가 오늘을 평가하는 어느 날 광장의 촛불을 일상의 촛불로 환하게 밝힌 시민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퇴진행동의 모든 구성원은 시민들의 한사람으로서 기꺼이 그 길에 함께 나설 것이다.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다.”

한편 박근혜에게는 2018년 4월 6일 1심재판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그녀의 범죄혐의 18개 중에서 16개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박근혜에 앞서서 2007년 대통령 당선 시절부터 여러 비리 의혹을 받아왔던 이명박도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2018년 3월 22일 구속되었다. 그는 2018년 10월 5일에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8년 6월에는 국정농단 박근혜와 놀아난 사법농단 양승태 행각도 검찰수사 선상에 올랐다. 그는 장장 7개월이 걸리는 지난한 검찰수사 끝에 2019년 1월 24일에 마침내 40여 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는 모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지만 그들의 결과는 참담했다. 특히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역사상 초유의 일로, 촛불혁명으로 인해 강력해진 국민주권의 힘이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다.

그 외에도 정경유착의 본보기였던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도 박근혜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가까스로 풀려났으나 또다시 삼성물산 분식회계 사건 수사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중이다. 우리 사회의 정경유착 근절과 빈부양

극화 해소가 촛불민심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임을 감안하면 촛불혁명의 위력은 지금도 강력한 사회개혁을 추동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촛불시위는 세월호 해난사고 진상규명, 시위농민 백남기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시위들에서 소규모로 시작하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규탄시위로 번지면서 점차 범국민 촛불항쟁으로 진화했다. 시와 노래와 춤과 가장행렬이 어울어지면서 촛불평화민주시민문화대잔치를 주말 밤마다 거듭하면서 마침내 박근혜 정권 퇴진 및 조기 대통령선거를 성사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촛불혁명’, ‘촛불시민혁명’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촛불혁명을 지지하며 행정적으로 적극 후원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7년 31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주최 〈안보의 날〉 콘퍼런스 기조세션에서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를 실현시킨 촛불시민혁명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그는 촛불시민혁명의 의미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 첫째, 시민들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 둘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평화적인 집회였다.
- 셋째, 촛불광장의 에너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진보학자군에 속하는 서강대 손호철 교수가 2017년 4월에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 당시 제 1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의원은 2016년 11월 11일에 대통령탄핵이 의결된 직후에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탄핵 의결은 촛불혁명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대통령, 정부, 국회가 도도한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들 차례입니다.”

촛불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의 정부가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2017년 7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보고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의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 19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면서 세계시민상을 수상하고 수상소감을 밝히는 중에 촛불혁명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말한 바 있었다. 이상은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이며 국제협력과 분쟁해결 분야의 세계적 연구기관인 대서양협의회(Atlantic Council)가 해마다 수여한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입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6일 청와대에서 8대 종단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에서도 촛불혁명을 예찬한 바 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명예로운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으로 흔들렸던 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려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도 이 말에 화답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처럼 촛불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018년 2월1일 ‘촛불혁명 이후 노동운동의 전망과 과제’라는 대담특집을 마련한 바 있다. 대담사회자인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인사말에서 촛불시민혁명이라는 용어를 여러 번 거듭 사용하였다.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걸쳐 진행된 촛불시민혁명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속에서 노동운동은 변화의 주역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변화의 대상으로서 지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동운동은 달라진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촛불시민혁명 이후 노동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애정을 갖고 노동운동을 지켜보는 연구자들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낸 촛불시민혁명의 정치사회적 성격에 대한 의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진보적 의제 공론화장이었던 한국사회포럼이 2018년 10월 15일 7년 만에 문을 열었다. 2002년 2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개혁적 학자·연구자들이 만나 분야별로 사회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포럼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던 2011년 2월에 활동을 멈췄다가 촛불혁명이 계기가 되어 활동을 재개했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36개 단체가 ‘2018 한국사회포럼 기획단’을 꾸려 1년간 행사를 준비했다. 이 포럼에서는 촛불혁명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이 기사를 게재한 매일노동뉴스는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어딜까’라고 쓰고 있다.

촛불혁명을 성취한 촛불시위 대장정은 아주 장엄하고 놀라운 면모들을 국내외 칠천만 동포들과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었다.

1. 촛불시위는 반정부시위, 민주항쟁, 시민혁명으로 발전해 가면서 투석, 각목 등도 없이 **일체의 비폭력 투쟁으로 일관**하였다.
2. 정치적 구호와 함께 시, 노래, 춤, 가장행렬이 수반된 **민주시민 문화대축전**이었다.
3. 남녀노소가 세대차를 넘어서 함께 어우러진 **거대한 대동세상의 한마당**이었다.
4. 주말마다 어둠과 추위를 이기며 촛불을 밝히고 모여든 **주권자들의 정치축제**였다.
5. 수백만 명이 운집한 광화문광장에서 **교통문제와 용변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고 시위 다음날 광장은 깨끗이 치워진 정결한 모습으로 온 세계를 놀라게 했다.**
6. 광대하게 펼쳐진 촛불바다와 촛불파도 놀이는 세계역사에서 도저히 잊히지 않는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연출한 장관이었다.
7. 총 23차에 연인원 1,700만 명을 동원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야간평화시위**였다.

8.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도발도 촛불시위대의 열심과 용기를 흔들지 못했다. 2017년 내내 북미 간에 말폭탄을 주고받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하에서도 촛불시위대의 동요나 국민들의 사재기 및 출구러시 따위는 전혀 없었다.
9. 국제사회는 촛불혁명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과 찬사를 보내왔으며, **야간촛불시위 평화문화대전지는 대한민국의 최고급 한류문화 브랜드**가 되었다.
10. 촛불혁명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촛불민심은 **국정비리 주범 이명박,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의 구속도 능히 성사시켰다. 이제는 1년 후 다음 총선에서 촛불민심이 반동적이고 수구적인 의원들을 모두 퇴출시킴으로써 **의회개혁도 멋지게** 이루게 될 것이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정치인들과 언론과 학자들이 자연스럽게 ‘**촛불혁명**’ 또는 ‘**촛불시민혁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항쟁이라 부르기를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부산의 민주인사들이 왜 ‘**촛불혁명**’이라 부르기를 주저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다. 아직 학술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에 혁명으로 불려질 것이 확실하면 지금부터 혁명으로 부르고, 그 혁명정신을 적극적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온 국민의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촛불항쟁이라 부르기를 고집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은 촛불혁명의 성과를 과소평가하고, 그 후속 과제의 해결을 추진하는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는 **촛불평화민주시민문화대혁명** 열기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진로를 찾아서 전진해 온 것이 분명하다. **촛불평화시민혁명**을 이룬 위대한 우리 국민의 힘은 북한의 소위 절대지존만이 극대화되어 독재체제도 능히 극복하고 민족의 평화통일까지도 이루게 될 것임을 필자는 확신한다. 이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민주시민혁명을 이루지 못한 주위의 인구대국 중국, 정치대국 러시아, 경제대국 일본을 능가하면서 진실로 인권과 평화를 누리는 선진 민주대국으로서 국제무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진실로 우리의 **촛불혁명**은 우리 민족사에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혁명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회자될 것이다.

굵은 글자는 필자의 강조 표시입니다. -편집자 주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 정기총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2월 14일(목) 오후 7시 민주공원 작은방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2018년 활동·사업을 평가하고 결산 및 감사보고서를 승인했다. 지난해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설립 주도 등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정립을 위해 힘썼으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진행했다.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 활동·사업 계획과 예산도 논의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2019년 (1)사업회의 조직적 재정적 안정화 도모 (2)부마민주항쟁 40주년, 우리회 30주년, 민주공원 20주년 사업 추진 (3)민주항쟁 기념사업 활성화로 우리회 정체성 강화 (4)지역 민주시민교육의 토대 정립을 기조로 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민주열사 박종철 32주기 추모제 · 제2회 박종철 문학상 시상식



민주열사 박종철 32주기 추모제와 제2회 박종철 문학상 시상식이 민주공원 작은방에서 1월 13일 오후 3시부터 열렸다. 제2회 박종철 문학상 최우수상을 받은 이종근 시인은 「대학 노-트에서」를 낭독하고 열사의 해방고동문은 열사가 걸은 길을 이야기했다. 김평수 무용가와 노동예술지원센터 흥의 추모공연도 이어졌다. 박종철 열사의 고모이자 올해 문학상 심사위원인 박정애 시인은 유가족 인사에서 "이름이 불리고 기억되는 한 살 아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박종철 열사와 그의 아버지 박정기 선생이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 제6회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

3월 1일 민주공원 큰방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문정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일제강점기 때와 같이 다시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전쟁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북한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미래세대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만세 삼창을 하며 3·1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이어 200여 명의 어린이가 참가한 제6회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가 열렸다. 수상작품은 민주공원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20회 전국청소년노술토론회

20회 전국노술토론회가 "청소년, 시민 저항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민주공원, 동서대학교 등지에서 열린다. 필독서는 <반란의 세계사>, <세상을 바꾸는 힘>, <복중에 반대한다> 총 세 권



이다. 3월 30일 민주공원 작은방에서 오준호 <반란의 세계사> 저자가 주제강연 '시민불복종과 기본소득'을 진행했으며 4월 13일(토)에는 엄기호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저자가 '어떤 글을 쓸 것인가'는 제목으로 글쓰기특강을 열었다. 20회 전국청소년논술토론회미당은 17~19세 청소년(중학생, 대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를 위한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의 논술문은 6월 17일까지 홈페이지로 접수한다. 토론회미당은 비경쟁으로 진행된다.



부산정신인물총서 1 <박재혁 적의 심장에 폭탄을 던져라> 발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도서출판 호밀밭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정신인물사 총서 5권을 2019년에 발간한다. 그 첫 번째 책, <부산경찰서 폭파의거 박재혁 적의 심장에 폭탄을 던져라>가 2월 발간되었다. 부산공립상업학교 재학 시절 비밀결사 '구세단'을 조직하고 항일 잡지를 발간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모진 고문을 당했던 박재혁 의사. 의사는 27세 일본 경찰이 칼을 차고 있는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후 투옥되지만 단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독립운동의 의지를 이어갔다. 안덕자 동화작가가 소설형식으로 재구성했으며 책은 온·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출범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2월 22일(금) 오후 4시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부설기관인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등 부산의 48개 시민단체가 함께한다.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의 정립과 확산, 반민주적 정서와 문화의 확산 방지, 민주시민교육의 다양성 확보 및 체계화, 지역 민주주의 정체성 계승과 창조, 인권과 주권의 식 확립 및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확립 등 부산의 민주적 토양을 가꾸어 나가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첫 번째 민주시민교육 사업으로 2월 27일 롯데시네마 부산본점에서 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를 단체관람했다.



극단 더블스테이지, Dance Project EGERO 민주공원 공연장상주단체 선정

극단 더블스테이지와 Dance Project EGERO가 2019년 공연장상주단체로 민주공원과 함께하게 됐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전문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상생협력을 통해 전문예술단체는 안정적 창작환경을, 공연장은 공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극단 더블스테이지는 지난 2017년 민주공원 공연장상주단체로서 부미민주항쟁을 최초로 다룬 연극 <거룩한 양복>을 제작하기도 했다. Dance Project EGERO는 민주공원에서 활동을 시작해 부산무용제 등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민주공원과 두 단체는 3월 19일 민주공원 관장실에서 협약을 맺고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공원 4~5월 프로그램
— 문의 demopark.or.kr | ☎ 051) 790-7400

민주공원 늘펼쳐보임방 무료로 관람하세요!

2019년 4월부터 민주공원 늘펼쳐보임방(상설전시실)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민주공원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 성인 200원, 청소년 100원의 늘펼쳐보임방 관람료가 폐지되었습니다.

◆ 해설 및 단체 관람 문의 ☎ 051) 790-7412



2019 어린이날 민주공원 놀이터

- 일시 : 5월 5일(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30분
- 장소 : 민주공원 곳곳
- 내용 : 어린이날 특별공연, 만들기 체험, 단체 놀이 등
- 문의 : ☎ 051) 790-7417



민주시민교육원 '나라한알' 4~5월 프로그램
— 신청 및 문의 www.narak.kr / ☎ 051) 463-2240

달달독특 지역작가-책-출판 네트워크프로젝트

민주시민교육원 나라한알에서는 지역의 출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작가-책-출판 네트워크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지역에서 출판한 저자와 출판인을 직접 초청하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달달독특 ①

- 일시 : 4월 27일(토) 오후 4시
- 장소 : 책과아이들(교대 앞)
- 내용 : 조근조근 제주신화

달달독특 ②

- 일시 : 5월 28일(화) 오후 7시
- 장소 : 한성1918
- 내용 : 숨쉬는 대저(원도심문화축전과 연계 행사)



대금아재AZ

대금을 직접 만들고 자신이 제작한 대금으로 연주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는 강좌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로투스 공부모임 2기

- 일시 : 매월 1, 3주 화요일 19시
- 내용 : 동아시아 근현대사 공부
- 대상 :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보수동채방굴목문학과 4~5월 프로그램
 - 문의 cafe.naver.com/bosubook | ☎ 051) 743-7650

상설강좌 예술산책

- 일시 : 매주 수요일 저녁 7:30
- 장소 : 4층 이벤트홀
- 내용 : 다시 시작하는 서양미술사

정두환의 화요일음악회

좋은 음악 & 좋은 만남

- 일시 : 매주 화요일 저녁 7:30
- 장소 : 4층 이벤트홀
- 내용 : 따로 또 같이 협주곡 이야기

기획전시

신비로운 잡학사전 <잡지전>

- 기간 : 3월 1일(금) ~ 4월 28일(일)
- 장소 : 3층 기획전시실
- 공동기획 : 동방미술회관 내 고서점

책그림전시

상추씨

(글·그림 조혜란/ 2017/ 사계절)

- 기간 : 4월 3일(수) ~ 25일(목)
- 장소 : 복도전시실

달려라 오토바이

(글·그림 전미화/ 2015/ 문학동네)

- 기간 : 5월 3일(금) ~ 26일(일)
- 장소 : 복도전시실



토요골목극장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4층 이벤트홀
- ※ 토요골목극장은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영화의전당'과 함께합니다.

4월 주제 “요리”

- 4월 20일 - 스탠리의 도시락 (2011)
드라마, 코미디, 가족/ 90분/ 인도/ 전체 관람가/ 감독 아물 굽테
- 4월 27일 - 심야식당 (2015)
드라마/ 120분/ 일본/ 12세 관람가/ 감독 마츠오카 조지

5월 주제 “노인”

- 5월 4일 - 그랜 토리노 (2008)
범죄, 드라마/ 116분/ 미국/ 12세 관람가/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
- 5월 11일 - 송 포 유 (2012)
코미디, 드라마/ 93분/ 영국/ 12세 관람가/ 감독 폴 앤드류 윌리엄스
- 5월 18일 - 인턴 (2015)
코미디/ 121분/ 미국/ 12세 관람가/ 감독 낸시 마이어스
- 5월 25일 - 찾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2013)
모험, 코미디, 드라마/ 114분/ 스웨덴/ 15세 관람가/ 감독 플렉스 할그렌



추억앨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창립 30년, 민주공원 개관 20년을 맞아 지난 시간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추억앨범을 보며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민주공원이 걸어온 길을 함께 돌아보세요.

사진 위에서부터 아래로

- 민주공원 소장 사료인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소식지 제1, 2호
- 1994년 6월 사단법인 등록기념 회원 산행대회
- 1995년 1월 정기총회
- 1995년 10월 부마민주항쟁 16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 1996년 6월 6월항쟁 9주년 기념식 및 부산민주공원 조성 설명회
- 1999년 8월 민주공원 자료 수집전을 둘러보는 문정수 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당시 부산시장)과故 박정기 아버님
- 1999년 8월 민주공원 자료 수집전을 둘러보는 문정수 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당시 부산시장)과 승기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故 박정기 아버님

<간단히 소개하는 함께 걸어온 길>

- 1989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창립
- 1994년 사단법인 등록
- 1995년 부산민주공원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 조직
- 1997년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개칭
- 1999년 민주공원 개관
- 2000년 민주공원 부산시로부터 위탁 운영
- 2000년 부설기관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설립
- 2010년 부설기관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설립
- 2011년 보수동채방굴목문화관 중구청으로부터 위탁 운영

4·19혁명 59주년 희생자 위령제

- 일시 : 4월 18일(목) 오후 5시
- 장소 : 4.19혁명 희생자 영령봉안소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

- 일시 : 4월 19일(금) 오전 10시
- 장소 : 4월민주혁명 희생자 위령탑 앞



4월, 5월
회원 참여
프로그램 안내



숲의 지혜를 배우어요!



도란도란 이야기해요!

2019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원 생태민주주의 체험

내 손으로 키우는 민주주의

민주공원만의 특색을 살린 가족 단위 프로그램으로 생태, 예술, 역사 등이 접목된 체험 활동입니다. 체험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 생태민주주의를 향한 희망을 심고 키웁니다. 쉽게 버려지는 합성수지 컵(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식물 화분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이 선순환 되는 과정을 한눈에 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숲의 지혜를 배우는 숲체험교실과 민주공원 예술놀이터에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 일시 : 4월 27일(토), 5월 25일(토) 오후 2시
- 일정 : 우리가족 반려식물 만들기, 숲체험 교실, 민주공원 예술놀이터

2019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원 만남의 날

고마운 인연, 새로운 만남

회원 가족은 물론 회원이 초대하는 비회원 지인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골목길 역사 탐방을 거쳐 5·18민주화운동 부산기념식까지 참석합니다.

- 일시 : 5월 18일(토) 오후 2시
- 일정 : 5월의 햇살 아래서 도란도란, 골목길 역사 탐방,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부산 기념식 참석

♥ 회원 프로그램 참가 신청 : 인터넷 접수

♥ 문의 : ☎ 051) 790-7473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또는 민주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